

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

- ◆ 작년 바이아메리카 면제 사례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 정책 변화 점검 목적
- ◆ 교통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바이아메리카 최신 지침 발표(2.15)
- ◆ 국가통신정보청(NTIA), 바이아메리카 적극 집행 의지 표출
- ◆ 바이아메리카 제도 세부 내용과 우리 산업 피해 분석 시급

1. 조사 배경

- 바이든 대통령, 신년 국정연설(2.7)에서 “국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자재에 미국산 사용 기준을 강화하겠다”라고 공언
 - 후속 조치로서 백악관은 OMB 지침 개정 내용을 관보 게재(2.9)하고, 향후 30일 간 공개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개정 확정 예정
- 우리 무역관은 작년 9.29자 보고서(US22-37)에서 바이아메리카 면제 사례* 검토를 통해, 미국산 특혜 제도 일부 후퇴 동향을 보고한 바 있음.
 - * 교통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, 건축자재 및 상무부의 광대역 인터넷 구축사업 등 면제
 - 동 보고서는 현재 기준 해당 면제 사례 동향을 업데이트함으로써, 미국 정부의 바이아메리카 정책 기류 변화 점검을 목적으로 함.

2. 바이아메리카 면제 사례 현황

가. 전기차 충전기

- (개요) 교통부 연방고속도로청(FHWA),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최신 지침 공개¹⁾
 - '21년 인프라 투자법 예산이 반영되는 '연방 전기차 인프라 예산 지원 프로그램'(NEVI)*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다음 2개 지침을 발표(2.15)
 - * 주·지방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보조금 지원(50억 달러 예산)

1) <https://highways.dot.gov/newsroom/biden-harris-administration-announces-latest-steps-deliver-national-network-convenient>

- (1) 전기차 충전소 설치·운영·유지보수 관련 표준 제안2),
- (2) 인프라 투자법 內 '바이아메리카 요구조건'과 관련한 이행지침3)

○ 상기 2번 지침은 '22.8월 FHWA가 제안했던 바이아메리카 지침을 대체

'22.8월 지침은 (1) '22.12.31까지 모든 바이아메리카 규제 한시 유예, (2) '23.1.1부터 국내 조립 생산 의무 적용, (3) '23.7.1부터 국내 조립 생산 + 부품비용의 25% 이상 국내 생산 의무 적용, (4) '24.1.1부터 국내 조립 생산 + 부품비용의 55% 이상 국내 생산으로 단계적 강화

□ (신규지침) 국내 조립 의무 즉시 적용과 '24.7.1부터 국산 부품 55% 규칙 시행

- 신규지침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2단계 바이아메리카 규정 확정
 - (1) '24.7.1 이전 생산된 충전기에 국내 조립 생산 의무 적용
 - (2) '24.7.1 이후 생산된 충전기에 부품비용 55% 이상 국내 생산 의무 추가 적용
 - ※ 그 밖에 철강이 주로(predominantly) 사용된 충전 인프라 시설은 해당 면제에서 제외
- 신규지침은 관보 게재 후 30일 이내 효력 발생 예정
 - 관련 의견은 관보 게재 후 5일 이내 FHWA 홈페이지4)를 통해 제출 가능

□ (반응)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 지연 불가피 전망

- 교통부의 업계 의견 청취5) 결과, 전기차 충전 제조기업 13개가 바이아메리칸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응답, 이 중 3개 기업*만 고속 충전기 생산 가능6)
- * ChargePoint, FreeWire Technologies Inc., Rhombus
- 그럼에도, 현재 세계적 전기차 충전기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, 바이든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7)

2) https://www.fhwa.dot.gov/environment/nevi/resources/ev_charging_min_std_rule_fr.pdf

3) https://www.fhwa.dot.gov/construction/cqit/buyam/BuyAmerica_FederalRegister.pdf

4) <https://www.fhwa.dot.gov/construction/contracts/waivers.cfm>

5) <https://www.regulations.gov/docket/FHWA-2022-0023/comments>

6) <https://www.detroitnews.com/story/business/autos/2023/02/15/feds-finalize-buy-america-rules-for-ev-chargers/69904929007/>

7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autos-transportation/new-biden-ev-charger-rules-stress-made-america-force-tesla-changes-2023-02-15/>

나. 건축자재

- (경과) 건축자재에 대한 교통부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는 효력 만료
 - '22.4.28. 교통부는 공시⁸⁾를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임시 면제 (temporary waiver)를 제안하고, 업계 의견 청취 후 최종 지침 수립 예정
 - 180일 동안(11.10까지) 건축자재 조달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집행 중단
 - 이후 '22.11.15. 교통부는 임시 면제 연장 중단 공시⁹⁾
- (확정) 백악관, 미국산 자재 관련 바이아메리카 지침 공개(2.8)¹⁰⁾
 - 백악관 관리 예산처(OMB)는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연방 부처에 공통 지침 하달¹¹⁾
 - 모든 연방 지원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반드시 바이아메리카 특혜 조항 반영 요구 (모든 하도급 사업까지 적용)
 - 대상 건축자재로 7개 제품군* 지정 (추가 지정 가능)
 - * 비철금속,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, 복합 건축자재, 유리, 광섬유케이블, 목재, 건식 벽체

다. 통신장비

- (경과)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(NTIA)은 특정 광역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한시적 면제 제안¹²⁾ ('22.9.19)
 - NTIA*의 Middle Mile Grant Program(MMG) 수행을 위해 광역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등에 대한 바이아메리카 규제를 제한적으로 면제 (Nonavailability Waiver)할 것을 제안하고, 유관 업계 의견 요청
 - 해당 면제 기간은 2023.3.1.~2024.3.1.까지 1년으로 제한
 - * NTIA는 인프라 투자법 예산 425억 달러를 6월부터 소외지역 인터넷망 구축에 집행 예정

8) <https://www.transportation.gov/office-policy/transportation-policy/made-in-america/proposed-temporary-waiver-for-construction-materials>

9) 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2/11/15/2022-24743/notice-that-the-build-america-buy-america-requirement-for-construction-materials-applies-effective>

10) <https://www.whitehouse.gov/omb/briefing-room/2023/02/08/new-proposed-guidance-to-boost-american-made-goods-in-federal-infrastructure-projects/>

11) 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3/02/09/2023-02617/guidance-for-grants-and-agreements>

12) <https://www.commerce.gov/sites/default/files/2022-09/NTIA%20Middle%20Mile%20BABA%20Waiver.pdf>

□ (현황) 최근 NTIA는 바이아메리카 강력 추진으로 급선회

-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(2.7)을 통해 건설자재 바이아메리카 강화를 공언한 직후, NTIA는 미국산 특혜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성명¹³⁾
- NTIA는 자체 조사 결과 현재 광케이블 등에 바이아메리카 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, “기업들이 리쇼어링 또는 생산 확대를 통해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협력하겠다”라고 밝힘.
- 현지 언론은 NTIA가 현재 검토 중인 MMG 프로그램뿐만 아니라, 향후 사업에서 바이아메리카 면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¹⁴⁾

3. 시사점

□ 백악관의 확고한 바이아메리카 의지에 따라 관계 부처 집행 강화 추세

- 한때 업계 의견을 수용해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교통부, 상무부 등 인프라 주무 부처는 최근 경쟁적으로 미국산 특혜 강화 재확인

□ 국내외 건설업계, 강화 중인 바이아메리카 규제에 우려 고조

- 대부분 기업이 인프라 법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하는 데 곤란을 토로하며, 한시적 제도 유예 필요 주장 (전미 건설협회 설문 '22.8월)
- * 특히, 철강, 비철금속, 플라스틱 제품, 전기장비, 냉·온방 장치 등 국내 조달

□ 바이아메리카 제도 세부 내용과 산업 피해 분석에 주력할 필요

- 바이아메리카 정책의 기술적인 세부 내용(면제 범위, WTO·FTA와 관계, 대상 품목 등)이 모호한 가운데, 유관 산업별 수출영향 평가 시급

* 자료 : 각주 참고

13) <https://www.ntia.doc.gov/blog/2023/making-internet-all-right-here-america>

14) <https://broadbandbreakfast.com/2023/02/ntia-stands-firm-on-buy-america-rules-says-bead-projects-must-be-american/>